

(’94년), PC뱅킹(’95년), 폰뱅킹(’96년), 신용카드납부제(’97년), 인터넷납부제(2000. 5월)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납부제의 경우는 75개 시군구에서 이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세의 경우에도 인터넷 납부는 금년 7월부터 시범실시하여 확산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3> 참조).

2) 인터넷 납부제 운영사례 (서울특별시 별시의 경우)

- 도입시기 : 2000년 5월
- 대상세목 :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15개 세목)
- 수납절차
 -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시·각 구청 홈페이지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 발송 → 자치단체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 거래은행 → 자동이체신청 → 금고은행 수납 통보 → 전산수납자료 송부(시군구) → 정리

3) 실태 및 분석

현재까지의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가 현금을 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납세자의 불편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도 영수증의 보관 및 세입관리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세무담당공무원의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되었고 과세관청도 세정운영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켰으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납부제가 실시되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축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만,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는 서울 등 대도시지역 위주로 도입시행중에 있어 농어촌지역은 PC보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터넷납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나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터넷 활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세의 인터넷 납부제는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 제출 등 지방세의 신고도 과세관청을 방